

전북도, 내년 청년일자리 1200개 만든다

행안부 공모 사업 선정 133개 사업 국비113억 지원 받아 신재생에너지 기업 연계·청년혁신가 지원 사업 등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국 공모 1위를 달성한 전북도가 2019년 1200개의 청년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에 전국 최다 규모인 13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3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

산형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21년도까지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1억8000만원)'과 '도내 10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27억원)'이 있다.

또 전통과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해 점포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 도제 지원사업(9000만원)',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이전주우수업체 지원(6억3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혁신형 아이디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 집중 육성 및 양성 교육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청년창업 허브센터 구축(2억6000만원)'과 청년들에게 창업 희망을 키우고 창업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위한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1억9000만원)'도 선정됐다.

도는 도내 거주 만 18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내년 1-2월 홈페이지 공지 및 SNS, 홍보매체 등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큰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지역 현장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주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앞 도로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여주시, 이순신광장 앞 미세먼지 신호등 눈길

여주시는 중앙동 이순신광장과 쌍봉사 거리에 미세먼지 농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한다. <사진>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받은 미세먼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쌍봉사거리와 이순신광장의 미세먼지 신호등에 표시된다.

신호등은 미세먼지 농도 기준에 따라 좋음은 파랑, 보통은 녹색, 나쁨은 노랑, 매우 나쁨은 빨강 등 4단계로 변한다.

미세먼지 정보 제공 후에는 온도와 습

도 등 기상정보도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호등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파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내년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중 청소년 수학여행단 남원으로 온다

남원시, 中 최대 청소년 연맹과 교류사업 양해각서 체결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이 내년부터 남원시를 찾을 것으로 보여 남원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원시는 중국의 최대 청소년 연맹인 '남경 흥건장 청소년 공익활동 북무중심(이하 흥건장)'과 수학여행단 유치, 관광진흥 인프라 구축, 청소년 교류사업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환주 시장과 흥건장 광범 지휘장, 유방 한국사립부 수석대표는 지난 17일 중국 남경시 흥건장 사무실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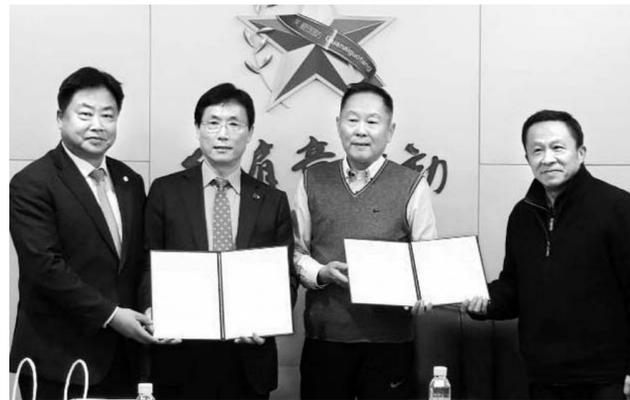
남원시 관계자는 "흥건장과는 협력을 통해 남원시가 중국 수학여행단을 인근 지자

체 등에 공급하는 구심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원시의 관광환경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역에 5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흥건장은 중국 전체적으로 2억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국방 이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단체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방중기간에 남경 항공항천대학교를 방문해 청년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남원 스토리텔링 57선 10권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이환주(왼쪽 두번째) 남원시장이 지난 17일 중국의 최대 청소년 연맹인 '남경 흥건장 청소년 공익활동 북무중심' 광명(왼쪽 세번째) 지휘장과 수학여행단 유치, 관광진흥 인프라 구축, 청소년 교류사업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남원시 제공>

정읍시, 내년 국가예산 5547억원 확보

올보다 387억 증액 역대 최대

정읍시는 2019년도 국가예산 5547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5160억원보다 38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로 정읍-신태인간도로확포장(206억원), 국도대체(농소-하모)우회도로(42억원),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25억원) 등을 확보해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농림·환경·문화·관광분야에는 ICT융복합사업지원 사업(14억원), 향토산업육성 사업(4억원), 신대인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6억원) 등이 반영돼 현안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R&D 사업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형 특성연구 인프라구축(18억원), 방사선 생물화

학반을 원천기술 확보(5억원), 화학물질 흡입독성평가 연구사업(5억원) 등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심활력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중심 시가지형, 공기업 제안형)에 선정돼 총 67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현안해결을 위한 타당성 부각에 주력해 왔다. 또 지역정지권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민주당평화당 유성업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새롭게 대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농기센터, 귀농인 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농기센터)는 귀농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을 모집한다.

체류형 농기센터는 농업지식과 체험기회·전문 컨설팅 기회 제공, 농촌이해·적응, 농업창업과정 실습과 교육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과거 귀농교육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옛 곡성역 재현 '간이역' 인기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옛 곡성역을 재현한 간이역이 생겨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쉼터가 되고 있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굳은 최근 기차마을 전통시장 안에 곡성의 분위기를 느끼며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쉬어가는 간이역'을 마련했다. <사진>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문객들이 곡성의 문화와 정서를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섬진강 기차마을에 있는 옛 곡성역을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즐겁고 쾌적하게 쇼핑하는 것은 물론 체류시간을 높여

시장매출 상승도 꾀하자는 의도다.

특히 전남지식재산센터의 '전통시장 맞춤형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쉼터 조성과 함께 맞춤형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별써부터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다"며 "쉬어가는 간이역과 맞춤형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을 통해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순창군, 숙원사업 순창변전소 건립공사 내년 4월 시작

순창군은 숙원사업인 순창변전소 건립공사를 내년 4월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풍산면 죽전리 풍선 2농공단지에 건립하는 순창변전소는 154MW의 전력을 2020년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농공단지 내 사조산일, 한보요업, 한국 C&T 등과 인근에 조성하는 민속마을·수체협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문의. 010-6834-7400